

# ‘전남·광주 행정통합’ 목포시, 서남권 거점도시 도약

###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 선도...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통합특별시 출범 맞춤 전략 마련...“미래 경쟁력 강화”

목포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지역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 통합이 법제화됨에 따라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이 강사로 나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통합 이후 지방정부 역할 변화 및 목포시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목포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통합 법제화에 따른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사진제공=목포시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행정·재정·권한 구조 변화에 대

비해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와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물류 기능,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산업, 수산·해양 산업, 해양·문화관광 산업 등 목포의 핵심 산업을 통합특별법과 연계해 분석하고, 통합 이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재정 권한 확대와 초광역 산업 전략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준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통합특별법에는 에너지·해상 풍력, 항만물류, 조선·수산 산업 등 지역

특성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어 서남권 발전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과 행정 역량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목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전략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목포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신안, 도서지역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 내달부터 암태면에 필라테스 강좌 운영

신안군이 암태면에 필라테스 강좌를 개설해 주민 건강증진과 도서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섰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4월부터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일환으로 암태면에 필라테스 강좌를 운영해 주민건강과 도서 지역의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상반기 암태읍 필라테스 강좌를 시작으로 필라테스 강좌 2개소, 태권도

강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62명이 수강을 신청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민간 스포츠학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생활체육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인접 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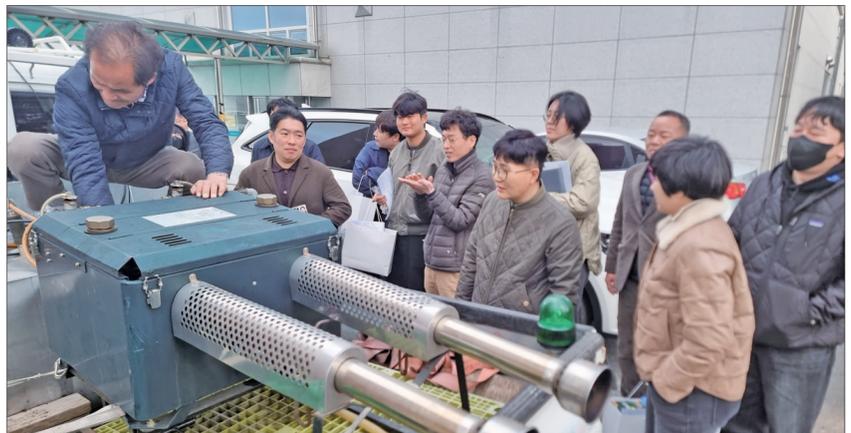
이에 군은 상대적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적은 학생과 여성을 대상으로 태권도 강좌와 필라테스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3개년에 걸쳐 거점별로 총 12개소의 스포츠 강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일부터 모임을 시작한 암태면 필라테스 강좌는 당일 접수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높아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는 공공 스포츠클럽과 체육시설을 활용해 1년차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무료로 운영하고, 2년 차부터는 수강료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용락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는 도서지역 스포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여성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거점별 생활체육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모기 예방·방역, 지금부터 철저히’ 강진군보건소는 최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읍·면 방역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위생해충 방제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방역협회 전남지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창운 강사를 초빙해 시기별 모기의 특성·생태, 모기의 종합적 방제법, 방제지리정보시스템 활용법, 방역장비 작동·유동처치 실습 등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이론·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사진제공=강진군

## 영암 귀농·귀촌 가족 월 1만원에 2년 산다

### ‘전남형 새뜰하우스 영암살래’ 입주 3세대 모집

영암군이 다음달 10일까지 월 1만원 임대료로 최대 2년 동안 영암에서 귀농·귀촌을 경험할 ‘2026년 전남형 새뜰하우스 영암살래’ 1차 입주 3세대를 모집한다.

영암살래는 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경제적 임대료로

제공해 생활 체험으로 정착 가능성을 높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보증금 120만원에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으로 저렴한 귀농·귀촌 가구가 비용 부담없이 지역에 정착할 길을 열었다.

전남형 새뜰하우스 3채는 영암읍, 시종면, 도포면에 각각 자리해, 모두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공고일 기준 전남도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세대원 전원이 영암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이다.

영암군은 전일 예정 인원과 향후 경제 활동 가능성, 지역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성료

진도군은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영농 설계를 돕기 위해 최근 조도면에서 ‘2026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7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 농업인 약 2000명이 참여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농가의 강한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장과 거리가 멀어 참여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7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재배 기술과 논공, 대파, 고추 등 품목별 전문 교육은 물론, 농가의 편의를 위해 공익직불제와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을 병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농작

업 안전관리 교육 또한 함께 진행해, 농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희수 군수는 “진도군이 2025년산 공공비축미의 특등 비율 전국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은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해 진도 농업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